

자전거 도로 정보 5편

– 금강자전거길 –



문화와 생태의 비단물길을 따라 달린다

대청댐에서 시작하여 1,500년 전 백제의 고도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금강자전거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주와 부여를 지난 금강하구둑이 만들어 놓은 금강호와 가창오리들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날갯짓을 보며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순례와 탐방의 길!

역사 속에서 문화로 되살아난 백제의 숨결을 따라, 시인의 노래와 작가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조화로움이 이방인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듯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진다.



THEMA

① 무덤 속에서 되살아난 백제의 문화

공산성 주차장에서 출발한 자전거길은 도심을 산책하듯 달려 무령왕릉이 자리한 송산리 고분군에 도착한다. 발굴 당시 전 서계 고고학계를 흥분하게 했던 무령왕릉은 왕이 살던 공산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1971년 송산리 고분군의 6호분 배수시설 공사 중에 도굴된 흔적이 없는 처녀분에서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라는 지석이 발견되면서 백제의 화려한 문화가 시공을 뛰어넘어 세상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② 큰 나라가 있는 강, 백마강

부소산 정상에서 해가 솟는 순간은 부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홀경이다.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듯 불쑥 솟은 해가 백마강을 황금빛으로 채색한다. 마치 성왕이 백제로 도읍을 옮기던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구드래나루에서 출항한 황포돛배의돛도 황금색으로 물든다. 백제가 역사에서 사라지던 그날처럼 부소산을 뒤덮은 구름이 화염처럼 붉게 물들고 물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삼천 궁녀의 전설이 서린 낙화암과 백제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고란사를 감싼다.

③ 수만 마리 가창오리의 황홀한 군무

작은 점이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면서 만들어내는 군무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공연. 먹구름처럼 하늘을 빙틈없이 까맣게 수놓았던 가창오리 군단이 금강 둑을 넘어 서천과 군산의 논으로 사라진 순간 금강둑의 갈꽃과 억새꽃이 비로소 가창오리의 군무가 연출하는 감동에 몸을 부르르 떤다.

참고자료

-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
- 네이버지도(map.naver.com)

(다음 호에 계속) – 자전거 도로 정보 6편